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월간 독립기념관을 웹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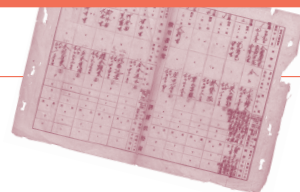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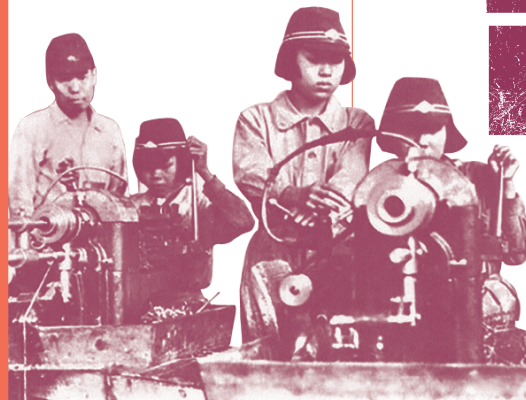
김명돌(金命堯, 1916~1983)

일제의 강제 징용·징병에 저항하기 위해
대왕산에 입산하여 의거대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1944년 7월 25일 대왕산 정상에 3개의 막사를 지어 진지를 구축하고
3개 소대 및 특정대·정보연락대·결심대를 편성하였다.
이어 일제 경찰들을 죽창(竹槍)과 투석(投石)으로 맞서 물리쳤지만
8월 10일경 식량 조달을 위해 하산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후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겪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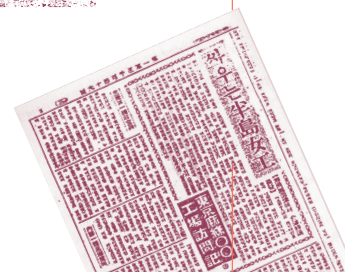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독립기념관

05



강제동원



2022
May
Vol. 411

통아보기
일제강제동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만나보기
비극의 아이들,
그 참혹한 증언

이달의 독립운동가
여성운동과
민족해방에 앞장선
박원희·김영순·조복금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2 May Vol. 411

05



www.i815.or.kr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품)

※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8551001-000092-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 천안라00001

발행일 2022년 5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한시준

편집인 신용관
편 집 신하윤(sunny@i815.or.kr)
편집위원 고명재, 권동운, 김민호, 유서현, 이봉근, 이정희, 정경민,
정현희, 홍동현

思 생각

04 들어가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06 돌아보기

일제강제동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10 만나보기

비극의 아이들, 그 참혹한 증언



人 인연

14 이달의 독립운동가

여성운동과 민족해방에 앞장선
박원희·김영순·조복금

18 독립운동 사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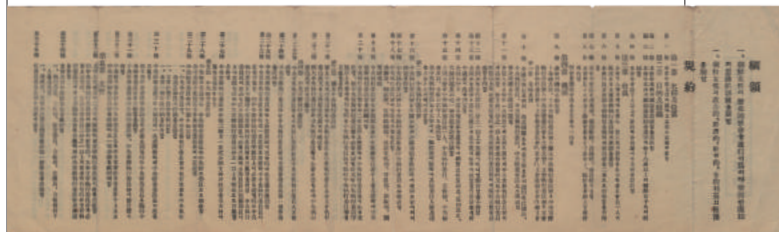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여성운동 대표 단체 활동 현장

20 아름다운 인연

여성·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
박원희와 김사국

24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일본의 끝없는 역사 왜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通 소통

26 독립의 발자취

일제가 남긴 상흔을 기록하다

30 세계 산책

미얀마의 영원한 독립영웅
아웅산

32 기념관은 지금

독립기념관의 과거와 미래를
사진으로 잇는 사람

36 기념관 소식

38 독자 참여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제국주의는 그들의 침략전쟁을 실행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동원을 자행하였다.

일제 통치기관이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계획적으로 수행하였기에
식민지배를 받던 조선인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쟁터, 탄광, 공장 등으로 끌려간 수많은 조선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혹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많은 이들이 끝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일제의 만행에 조선인들이 순순히 응한 것만은 아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탈출을 감행하였고,

파업, 태업, 투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저항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수많은 사료와 증언들이 입증하고 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흘렀다.

떠올릴 때마다 마디마디가 아린 이 역사는 진정한 광복을 맞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한없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부단히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세월이 약이라 이른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고통과 수난의 역사를 끝맺기 위한

‘기억 투쟁’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다.

일제강제동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제징용에 동원된 노무자들

일제 침략전쟁에 희생된 수많은 조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 군수공장, 탄광 등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원치 않은 총을 들어야 했고, 밤낮없이 고달픈 노역에 시달렸다. 피해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묻으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료와 증언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일제강제동원의 개념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을 벌이기 위해 실행한 인적·물적 동원을 말한다. 강제동원은 일본 본토와 남사할린, 식민지(조선, 타이완), 점령지(중국 관내, 중서부 태평양, 중국 동북부 지역인 만주, 동남아시아) 등 일제가 지배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행되었다. 본격적인 강제동원은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 1938년 4월 1일 제정)을 만들면서 자행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모든 지배지역에 있는 인력과 물자, 자금을 전쟁에 총동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의회 동의 없이도 일제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전시제 기본법이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국민징용령 등 각종 통제법령을 시행하였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노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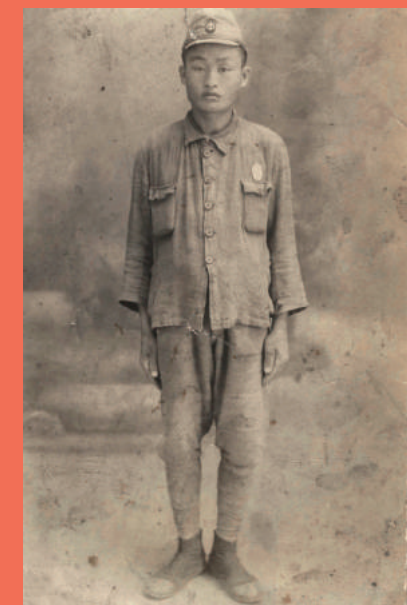
한국의 현행법(법률 제12132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피해자는 노무자이다. 일제는 모집(1938.5~1945.6), 국민징용(1939.10~1945.6), 관알선(1942.2~1945.6)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동원하였다. 일제는 이를 ‘동원경로’라고 하였다. 동원경로는 일제 국가권력이 공권력으로 집행하였다. 노무자를 선정하는 일부터 기차와 배에 태워 보내기까지 모두 도·군·면의 직원(노무계와 면서기)과 이장, 경찰이 맡았다. 특히 노무자 인솔과 수송은 관할경찰서의 몫이었다. 1943년 3월 19일 일제 메이지광업(주) 소속 탄광으로 한인 105명을 보낸 책임자는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경찰서장이었다. 피해자 가운데 노무자가 많았던 이유는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만드는 등 민간인의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7,804,376명의 피해자

전시 강제동원은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일본 국가권력이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계획적으로 수행한 공식 업무였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 개인이 아니라 통치기관(일제 정부 기관, 조선총독부, 남양청 등)이 주관하였기에 식민지 및 점령지의 민



조선총독부의 「징용자명부」



강제징용에 동원된 노무자 정학상

중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국가총동원법 제33조에는 ‘명령에 불복(不服) 또는 기피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있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2015년 12월 폐지)가 산출한 인력 동원 피해 규모는 7,804,376명이다. 이 숫자는 중복해서 계산된 인원이 포함되어있다. 피해자 1인이 여러 차례 동원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 동원인원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김명돌



박재천

저항에 나선 조선인들

일제의 강제동원에 조선인들이 순순히 응한 것만은 아니었다.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반대투쟁을 전개하였고,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탈출을 감행하였다. 또한 민족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노동조건하에서 파업, 태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조선인들의 저항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강제동원 거부사건으로 '대왕산 죽창의거'를 들 수 있다. 1944년 7월 15일 안창률(安昌律)·김명돌(金命堧)·박재천(朴在千)을 포함한 청년 29명은 일제의 징병과 노역에 저항하기 위해 대왕산(大旺山)에 진지를 구축하기로 결의하였다. 7월 25일 밤 29명 전원은 대왕산 진지에 모여 의거대를 조직하여 주재소를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그들을 잡으러 온 일제 경찰을 죽창(竹槍)과 투석(投石)으로 맞서 물리쳤다. 그러나 8월 10일 경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가 모두 체포되고 말았고, 이후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광복을 맞아 풀려났다.

대왕산 죽창의거 공적비 전경



강제성 부정을 고수하는 일본

“... 1940년대 일부 지역에서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가혹한 조건하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한 많은 한국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정부 또한 요구 정책을 시행했다. ...”

2015년 7월 5일, 독일에서 열린 제39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주 유네스코 일본대사의 공식 발언이다. 이 발언은 일본 최초로 국제기구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강제동원을 공식 인정한 사례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발언 직후부터 줄곧 철저하게 '강제성 부정'을 고수하고 있다. 사토 구니 대사의 발언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현재 총리)은 기자들에게 '강제가 아니라 일하게 되었다'는 자발적 노동 의미로 번역하였다. 취업의 의미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현재까지 이어져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0년 6월 일본이 도쿄에 설치한 일본산업유산정보센터는 역사 왜곡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적으로 입증된 위법성

이러한 역사 왜곡과 부정은 일본정부 입장에 국한하지 않는다. 2019년에 국내 출간한 『반일종족주의』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한인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한인 강제동원은 강제가 아니었는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법이 강제였다고 입증하고 있다. 1997년과 2002년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자행한



강제징병에 동원된 청년들

“전시 강제동원은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일본 국가권력이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계획적으로 수행한 공식 업무였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 개인이 아니라 통치기관이 주관하였기에 식민지 및 점령지의 민중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한인에 대한 전시노무동원이 국제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을 위반했으므로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위반(ILO 제29호 조약), 둘째, 노예조약 및 국제관습법으로서 노예제의 금지 위반(국제연맹 규약 제22조 5항), 셋째,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는 행위(뉘른베르크(Nuremberg)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극동군사재판소 조례에서 처음 실정화된 전쟁범죄)였다. 1919년에 창설된 국제노동기구(ILO)는 1930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일명 강제노동협약)(29호)을 채택하였고, 1932년 일제는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일제는 제1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사용을 억제할 법적 의무를 져야 했다. 그 외 제13조, 제14조 제1항과 3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21조, 제25조 규정도 있다. 일제의 한인 강제동원은 강제노동협약의 규정을 광범위하

고 체계적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강제노동 협약 제2조 제2항(전쟁, 지진, 화재 등 긴급한 경우는 제외)을 들어 합법적이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ILO는 1997년에 조약(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에서 일본은 제2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돌발적 우발적이어서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일본의 침략전쟁은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아니라 계획적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ILO의 CEACR는 1999년 제87차 ILO 총회(ILC)에서 일본 당국의 전시노무동원에 관한 소견을 공표하였다, “이같이 개탄스러운 조건으로 일본의 사부문 산업에서 일할 노동자를 대량 징용한 것은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는 내용이었다. 이같이 일제의 한인 전시노무노동의 위법성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강제성 부정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비극의 아이들, 그 참혹한 증언

강제동원의 피해는 어른들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일제는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하여 탄광, 공장 등으로 끌고갔다.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약한 몸으로 가혹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끝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착취

일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물자를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갔다. 미국부터 광물·목재·소금에 이르렀다. 한반도 전역에서 손가락과 낫그릇을 징발해 인천 부평의 육군조병창 주물공장에서 녹여서 무기도 만들었다. 그런데 공출은 물자만이 아니었다. 물자와 함께 사람도 공출(供出)하였다. 많은 한인이 노역에 시달렸다. 주로 장정들을 동원했으나 노인과의 아이들, 여성들도 있었다.



강제징용에 동원된 소녀들



일제가 만 14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동원한다는 내용의 기사, 『매일신보』(1941.5.2)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들(1945. 10. 19)

이 가운데 어린이 사례를 살펴보자. 당국은 일본, 남사할린, 중서부태평양, 한반도의 탄광과 광산, 군수공장, 토목건축공사장, 집단농장으로 어린이들을 내몰았다. 그렇다면 몇 살부터 어린이로 보아야 할까. 사전을 보면, 아동은 ‘보통 만 6세 이상 13세 미만’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은 ‘만 14세 미만’이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이다. 일제는 이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법에는 동원 나이(모두 만 나이)가 적혀 있다. 각종 규정을 보면,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동원 나이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규정대로 동원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는 더 어린 아이들을 동원하였다. 동원 실적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동원 방식도 다양하였다. 이장이나 면서기가 동원하기도 하였고, 교사가 회유하기도 하였으며, 길거리 납치도 서슴치 않았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일제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동원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 사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린 소녀들

일제는 여성노동동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원연령 확대와 강제력 강화를 위해 1944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알선지도’에 따라 10대 초·중반 여학생들이 교장과 담임교사의 지원종용과 감언이설에 속아 강제동원 되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1944년 4월경부터 조선이나 일본, 만주 등의 공장으로 동원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동원지로 후지코시강제공업(주) 도야마공장, 미쓰비시중공업(주)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도쿄아시아토방적(주) 누마즈공장 등이 있다. 12~16세 어린 소녀를 동원하여 군대식 노동규율과 장시간 노동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소녀들은 크고 작은 노동재해는 물론, 지진과 공습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감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끝내 탈출을 감행하다 붙잡힌 소녀들에겐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 발가벗겨 기숙사마다 데리고 다니며 망신을 주고, 감독들이 집단 성폭행한 뒤 공창에 팔아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강제노역에 동원된 아이들의 증언

야나기모토 비행장 건설 공사장에는 열세 살 소녀 정자가 있었다. 1931년 8월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정자는 세 살 때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해 나라현 야마베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1944년 7월 근로보국대로 끌려갔다. 비행장에서 모래를 이고

* 일제가 어린이를 강제로 동원하기 위해 만든 각종 규정

- 1 국민근로보국대 실시요강(1938년 6월) : 20세~40세 남녀
- 2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년 11월) : 14세 이상~40세 미만 남성, 14세 이상~25세 미만 여성
- 3 노무조정령(1941년 12월) : 14세 이상~40세 미만 남성, 14세 이상~25세 미만 여성
- 4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개정(1944년 11월) : 14세 이상~60세 미만 남성, 14세 이상~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
- 5 여자정신근로령(1944년 8월) : 12세 이상~40세 미만 여성
- 6 국민근로동원령(1945년 4월) : 12세 이상~60세 미만 남성, 만 12세 이상~만 40세 미만 여성



항공기 제조공장에 동원된 소녀들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된 소녀들

자루에 담거나, 흙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 여름 내내 힘든 일을 하는 딸이 안쓰러운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며 학교를 중퇴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제는 며칠 후 이번에는 정신대로 시즈오카조선소에 가라고 통보하였다. 아버지는 “시즈오카가 너무 멀다”며 손을 써서 오사카에 있는 비행기 부품공장으로 가도록 하였다. 하루 12시간씩 하는 공장일은 힘들고 위험하였다. 공장에서 정자는 기계에 넘어져 얼굴에 흙터가 남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전쟁은 소녀에게 장애를 남겼다.

한편 1924년 4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소년 봉제는 1940년 10월 오사카에 있는 해군시설부 직속 도크공사와 나라현 덴리시에 있는 해군 야나기모토 비행장 건설 공사장에 끌려갔다. 만 열네 살 때였다. 어린 나이에 해군공사장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읍에 나갔다가 중앙시장 부근에서 붙잡혔기 때문이다. 소년은 순사에게 잡힌 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해동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일본으로 떠났다. ‘중앙로 1가, 지금 강원은행 지점 옆’, 70년이 되도록 잊을 수 없는 해동여관 자리다.

창살 없는 감옥, 하시마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하나인 군함도라고 불리는 하시마도 조선의 아이들을 동원한 노역장이었다. 일본의 우익과 한국의 역사부정론자(『반일종족주의』 필자들)는 지금도 “하시마에 소년 광부는 없었다”며 세계 시민들에게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 탄부는 존재하였다. 1929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최장섭은 1943년 하시마에 끌려갔다. 3남 5녀의 식구들은 가난했지만 불행하다

고 생각하지 않았다. 불행이 닥친 것은 큰형이 당국의 동원에 응하지 않고 몸을 숨겨 반역자 집안이 되면서 부터다. 면 노무계인 윤가는 1943년 1월 28일 엄동설한에, 열세 살 소년을 데리고 익산군청으로 갔다. 장섭을 본 군수가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어린애를 보내려느냐”고 하자, 윤가는 “형이 동원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대신 일본에 충성을 다하고자 보내는 것”이라 하였다. 장섭은 하시마에 도착해 파도가 방파제 주변 옹벽에 부딪치는 것을 보고 ‘저기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였다. 해저 천 미터 이상 내려가는 갭 안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도착한 다음날 오후부터 소년은 2년 5개월간 탄부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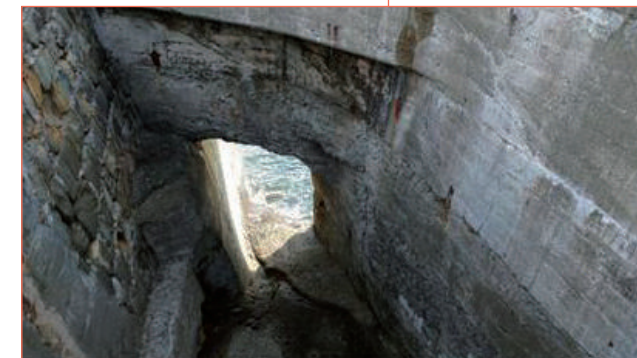
사망원인도 알 수 없는 어린이 사망자

각종 노역장에서 어린이 사망자는 속출하였다. 탄광산과 토목건축 공사장이 가장 심했다. 1931년 2월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난 세창은 1943년 7월 중천가곡광산에 동원되었다. 겨우 열한 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은 광산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갭이 무너지면서 기계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절망한 부모는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다.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뜬 자식은 불효자 중에 가장 큰 불효자인데, 부모보다 먼저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일본 당국은 조선의 아이들을 강제노역장으로 동원했다. 그렇다면 일본 아이들도 동원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당국이 법 규정을 어겨가며 동원한 것은 조선의 아이들이었다.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

하시마에 도착해 파도가
방파제 주변 옹벽에
부딪치는 것을 보고
‘저기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였다.
해저 천 미터 이상
내려가는 갭 안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세상으로 통하는 창구, 하시마(2017.11.촬영).
역사문화콘텐츠 공간 제공



강제노역에 동원된 소년 김태순

여성운동과 민족해방에 앞장선 박원희·김영순·조복금



박원희(朴元熙)
1898~1928
애족장(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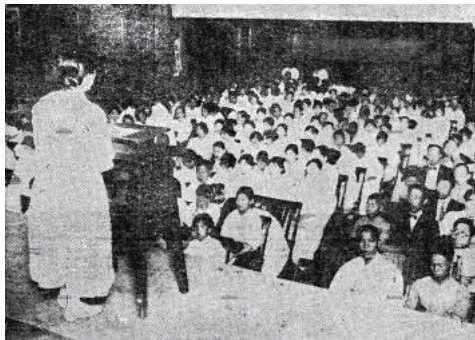
김영순(金英順)
1892~1986
애족장(1990년)



조복금(趙福今)
1911~미상
애족장(2018년)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단결하여 근우회를 조직하다

1927년 5월 27일 '조선 여성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근우회 창립대회가 열렸다. 근우회는 창립 이후 국내외에 60여 개의 지회를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강연과 야학 등을 통해 여성인식을 향상시켰다.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관련된 여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지원했고, 기관지 『근우權友』를 발간하며 여성 계몽에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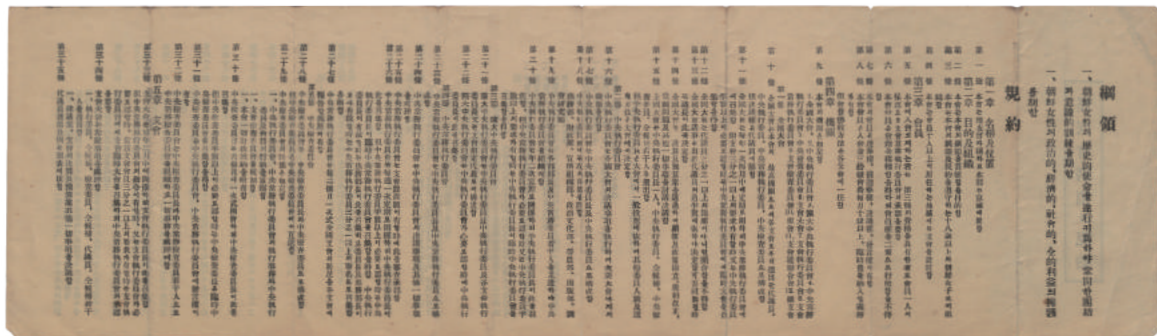
근우회 발회식(1927.06.17.)

근우회 조직에 앞장선 박원희와 김영순

근우회 조직에 앞장선 박원희와 김영순은 근우회 창립 이전부터 여성 계몽과 민족해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박원희는 1926년 중앙여자청년동맹 등을 조직하고, 강연 등을 하며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김영순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애국지사들을 돕기 위해 조직된 대한민국의무부인회에 가입하여 서기로 활동하였다. 이때 독립자금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낸 일이 발각되어 1920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각각의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던 박원희와 김영순은 1927년 5월 27일 YMCA강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두 사람은 근우회 각 부서 사업과 임원, 발회식 일정과 장소, 지회 설치 등을 결의하였다. 두 사람은 부인교양을 위한 강연활동을 전개하며 여성 단결과 지위 향상에 앞장섰다.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어 박원희(2000년)와 김영순(1990년)에게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근우회 강령 및 규약



『조선여자교육의 현상과 근본정신』 『동아일보』(1927.07.08.)_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으로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동지들 사진 (1번 김영순)

근우회 경상남도 하동지회에서 활동한 조복금

근우회 경남 하동지회는 1928년 7월 1일 결성되었다. 국내외 60여개의 지회 가운데 하동지회는 부인 야학을 개설한 몇 안 되는 지회 가운데 하나였다. 하동청년동맹 여자지부에서 활동하던 조복금은 하동지회 결성에 참여하여 서무재정부를 맡는 등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전국대회 대의원과 하동지회 1주년 기념강연회 강사로 선출되었다.

조복금은 근우회 해산 이후 경상도 일대에서 노동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32년 공산주의자협의회 전단을 출판·배포한 혐의로 붙잡혔고, 1933년에는 전북·전남·경남 등지의 사회주의 비밀 결사 조직과 관계되기도(일명 전북교원비사사건 全北敎員秘社事件) 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8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근우회 하동지회 설립』 『중외일보』(1928.07.05.)_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전북교원비사秘社 날로 확대』 『동아일보』(1933.09.13.)_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은 조선사회 전체를 위하여 나아가 세계 인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우회 창립선언문 중

근우회를 이끈 여성독립운동가 박원희·김영순·조복금



1

1927년 5월 27일 YMCA 강당에서 근우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중앙여자청년동맹 등을 조직한 박원희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서기로 활약한 김영순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

박원희와 김영순은 5월 29일 열린 제1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근우회 활동의 청사진이 될 8개항을 결의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표양부원으로 활동하여 편집부와 학생부 설립·운영을 전담하였고, 부인 표양을 위한 강연활동에 힘썼다.



3

박원희는 '부인문제', '특수 환경에 처한 조선 여성의 사명' 등의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신간회 활동에도 참가하였다. 그러나 박원희는 1928년 1월 5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의 장례는 사회단체연합장으로 거행되어 1,00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해 추모하였다.



4

한편 근우회는 국내외 60여개 지회를 조직하였는데, 경남 하동에서 여성 청년단체를 이끌던 조복금은 1928년 7월 하동지회 설립에 앞장섰다. 서무재정부를 맡았던 조복금은 하동지회 집행위원과 정기대회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하동지회를 활발하게 이끌어갔다.



5

근우회 해산 이후 조복금은 1932년 7월 대구에서 공산주의자협의회를 조직하여 기관지 출판·배포 및 동지규합 활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고, 이어 1933년 '전북표원비사사건'에 관계되는 등 노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6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김영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2000년 박원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2018년 조복금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일제강점기 여성운동 대표 단체 활동 현장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찾기

조선여성동우회는 창립 이래 일제 경찰의 간섭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로서 여성사회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27년 5월 조선YWCA 계열과 함께 여성운동의 협동전선으로 근우회(槿友會)를 결성하여 그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 조선여성동우회

조선여성동우회는 1924년 5월 박원희·주세죽·허정숙·정종명·우봉운·정철성 등 사회주의계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신사회 건설 및 여성해방운동에 나설 일꾼 양성과 훈련을 목적으로 창립한 여성사회운동 단체이다. 조선여성동우회에는 서울청년회 영수(領袖) 김사국의 처 박원희와 화요회계 박현영의 처 주세죽, 임원근의 처 허정숙 등이 포진하여 외형상 당시 사회주의 운동 분파를 망라하였는데, 조선공산당의 창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주세죽·허정숙 등 화요회계가 우세를 점하게 되고 서울청년회

계 박원희파의 세력이 밀려나게 되었다. 조선여성동우회는 창립 이래 일제 경찰의 간섭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로서 여성사회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27년 5월 조선YWCA 계열과 함께 여성운동의 협동전선으로 근우회(槿友會)를 결성하여 그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조선여성동우회는 창립 직후 관철동, 와룡동, 안국동, 관훈동 등지를 전전하다가 1925년 4월 10일 낙원동 173번지 화요회 회관 자리를 물려받아 자리를 잡고 근우회 결성을 이끌어냈다.

근우회는 창립 이후 전국에 지회를 조직하는 한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야학의 설립과 강연회 등을 통해 문맹퇴치와 여성계몽에 주력하였는데, 1928년 7월 임시전국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부터는 이념 중심의 활동이 주종을 이루었다.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의 총본영, 근우회

근우회는 민족협동전선 신간회의 창립에 발맞춰 조선YWCA와 조선여성동우회 등 민족주의계와 종교계, 사회주의계의 여성운동가를 망라해 여성의 단결과 지위향상을 내걸고 1927년 5월 출범한 여성운동의 총본영이다. 근우회는 처음부터 위원회 체제를 채택해 중앙집행위원회가 본부 구실을 하였다. 1927년 5월 27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은 정철성·정종명·이현경 등 사회주의계 9인과 김활란·유각경 등 민족주의계 8인, 그리고 최은희 등 중립계 4인이었다.

근우회는 창립 이후 전국에 지회를 조직하는 한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야학의 설립과 강연회 등을 통해 문맹퇴치와 여성계몽에 주력하였는데, 1928년 7월 임시전국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부터는 이념 중심의 활동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1930년 이후 활동이 눈에 띄게 침체되어 신간회 해소론의 대두와 더불어 1931년 해소의 길을 걸었다. 해소될 때까지 국내·외에 70여 개의 지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펼쳤다.



조선여성동우회 회관 터 정면

1924년 5월부터 1927년 5월 근우회가 창립될 무렵까지 조선여성동우회의 회관이 있었던 곳이다. 현재 음식점 '종로집'이 들어선 상가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16
위치 고증 『동아일보』 1925년 4월 13일자에 조선여성동우회가 관훈동 번지에서 낙원동 173번지 전 화요회 자리로 회관을 이전한 기사가 나오고, 1927년 5월 6일자에 다시 원동 121번지로 사무소를 이전한 기사가 나온다. 1912년 경성부 낙원동 지적원도와 토지조사부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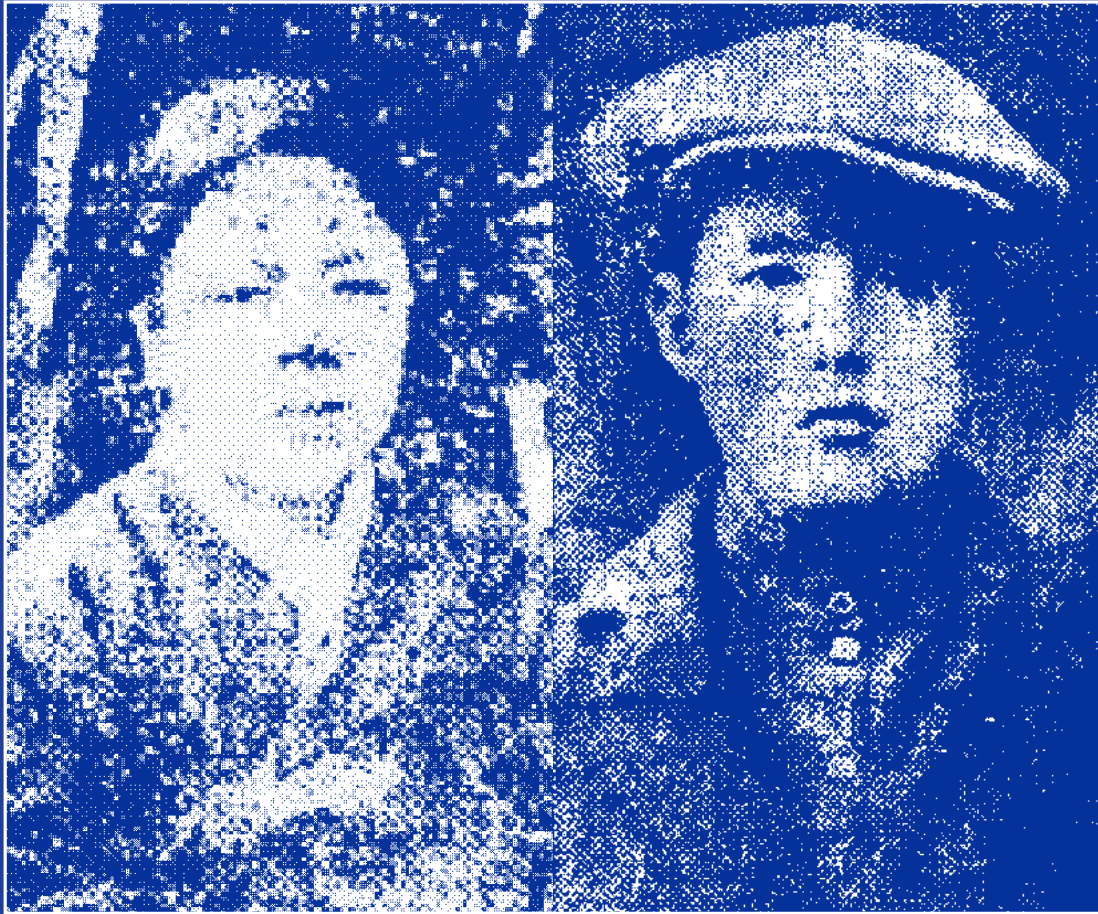
근우회 회관 터 센트로폴리스 빌딩

1927년 신간회 창립에 발맞춰 여성운동의 총본영으로 출범한 근우회의 회관이 있었던 곳이다. 공평동 일대는 재개발로 인해 많은 번지가 사라지고 통합되었다. 근우회 터는 현재 '종로 센트로폴리스 빌딩'에 있는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위치 고증 『동아일보』 1927년 9월 26일자에 인사동 중앙예배당 임시사무소(조선 YWCA회관)에서 공평동 43번지로 근우회 회관을 이전한 기사가 있고, 종로경찰서장 명의의 「근우회본부 통문우송의 건」(1930.5.10.)에도 주소지가 공평동 43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1912년 경성부 공평동 지적원도와 토지조사부를 통해 번지를 확인하였다.



여성·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 박원희와 김사국



박원희와 김사국

박원희와 김사국은 부부이자 사상적 동지였다.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이 곧 조국광복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 믿은 두 사람은 생을 다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노동자·농민·청년·여성 등 기층민중을 위한 민족교육과 사회주의운동의 통일·단결에 노력을 기울였다.

민족독립 방안을 모색하다

김사국(金思國)은 1892년 11월 9일 충남 연산(현 논산시) 출신으로 아버지 김경수(金慶秀)와 어머니 순흥 안씨 안국당(安國堂)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연안, 호는 해광(解光)이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13세 때 어머니와 동생 김사민(金思民)과 함께 외가로 생활근거지를 옮겼고,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서 한학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07년 공부부를 위해 경성(현 서울)으로 간 그는 보성학교(현 보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친 뒤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피혁회사에 다니며 고학을 이어갔고, 그해 4월 한국유학생들의 연합단체인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에 가입하고 기관지 『대한흥학보』 출판부원으로 활동하였다. 한일병합이 선포된 뒤 귀국한 사국은 한성중학교에 입학하여 학문을 이어갔다. 이후 1918년 6월 남만주 철령·개원과 연해주 등지를 돌며 문창범·윤해·이동휘 등과 교류하며 민족독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1919년 3·1운동 직전 경성으로 돌아온 사국은 한성정부 수립을 위한 ‘조선국민대회’를 주도하다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았다. 1920년 9월 6일 출옥 후 동생 김사민이 간사로 활동하던 조선노동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서울청년회 결성에 참여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국은 조선청년회연합회 기관지 『아성(我聲)』에 신사조 관련 글을 여러 편 기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 식민지 노예교육에 맞서 조직된 조선교육개선회 위원이 된 사국은 조선불교청년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 청년회와 조선노동대회 등의 초청으로 강연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갔다.

부부가 되어 사회주의운동을 실천하다

1921년 7월 사국은 여성 사회주의운동가 박원희(朴元熙, 본명 박연희)와 결혼하였다. 두 사람은 “우리는 굳센 용사가 되어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을 세다.”라는 맹세를 하고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났다. 사국은 『5·1신보』 발기에 참여하였고, 더불어 미나미센주(南千住) 교외에서 김

사민·박상훈·임봉순·정남태 등과 사회혁명당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도쿄 중앙청년회관에서 반도고학생 친목회 주최로 「현대적 경제조직의 결함」을 강연하고 흑도회 결성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사국은 무산자동지회와 김약수 등 12인과 ‘동우회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귀국한 사국은 잡지 『학생계』 속간 기념강연회에서 「학생에게 소(訴)하노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인쇄직공친목회 주최 강연회에서 「노동운동의 의의」라는 주제로 노동운동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1922년 4월 조선청년회연합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사기공산당사건’에 관련된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부 간부이자 조선노동공제회와 조선청년회연합회 간부인 최팔용·오상근·장덕수 등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서울청년회를 이끌고 조선청년회연합회를 탈퇴하였고, 그해 6월 서울청년회 임시총회에서 장덕수·김명식 등 상해파 고려공산당 당원 5인을 제명하였다.

1922년 8월 사국은 ‘니가타현 조선인학살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되어 천도교회관에서 진상조사를 보고하였다. 조선노동대회 주최 강연회에서 「민족적 단결과 계급적 단결」을 주제로 강연하다가 일경에 의해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영·김영만·임봉순 등 15명과 함께 서울청년회 내부 ‘공산주의그룹’을 창립하고 이어 자유노동조합 발기총회에 참가하였다. 사국은 ‘신생활사 필화사건’이 발생하자 만주로 활동근거지를 옮겼다. 고려공산동맹의 승인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의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원동부에 파견되어 이젤손 등을 만났으나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1923년 3월 김정기·방한민 등과 함께 북간도(北間島) 룡징(龍井)에 사회주의 교육기관인 동양학원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8월 일제의 ‘동양학원탄압사건’으로 중국 관헌에 의해 50여 명의 학생이 체포되면서 동양학원은 폐교당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은 사국은 영고탑(寧古塔)으로 가서 대동학원을 설립하는 등 사회주의 선전과 교육운동에 종사하였다.

사회주의운동의 선구자, 숨을 거두다

1924년 5월 폐결핵이 걸린 몸으로 귀국한 사국은 통일



『김사국씨 영면』, 『동아일보』(1926.5.10.)

던 조선공산당 조직을 위한 ‘13인회’ 결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어 북평회·화요회·신흥청년동맹을 방문하여 ‘전조선사회주의운동자대회’의 개최를 제창하였다. 1924년 12월 사회주의자동맹 집행위원, 1925년 4월 전조선노동대회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나 폐결핵이 악화되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국은 1926년 5월 8일 종로구 가회동 북악청년회관에서 3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정우회·전진회·조선노동당·조선청년총동맹·조선형평사 등 40여 단체의 조선사회운동단체연합장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사회운동연합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 사국의 시신은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수철리공동묘지에 묻혔으나 이후 망우리공동묘지로 이장되었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어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고, 사국의 유해는 망우리공동묘지를 떠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김사국의 장례식



여성지위향상과 항일독립운동에 힘쓰다

박원희는 1898년 3월 10일 대전 유성구 출신으로 아버지 박래빈(朴來彬)과 어머니 충주 박씨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란 그는 매사에 다재다능하여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받았다. 당시 전국 수재들이 모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자고등학교) 사범과를 졸업하였고 이후 강원도 철원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재직 중 3·1운동을 마주한 원희는 여성들의 참여에 주목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족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1921년 7월 결혼과 동시에 교사를 그만두고 사국과 함께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 주경야독으로 고된 나날을 보내었다. 귀국 후 전조선청년당대회 등에 참가하며 활동 반경을 넓힌 원희는 곧이어 사국과 함께 북간도로 건너가 동포 청년교육에 매진하였다. 사국이 설립한 동양학원에서 영어과목을 담당한 원희는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주의운동도 함께 지도하였다. 수감 중에도 앨런 케이의 저서를 번역하는 등 여성해방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다.

1925년 초 경성여자청년회를 조직하여 이끈 원희는 “부인의 독립과 자유와 모성보호의 실현을 도모하는 조선의 딸들아, 군세계 뭉치자”라고 주장하며 조직의 목적을 밝혔다. 경성여자청년회는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로 현 사회는 부인의 인격 존재를 부인합니다. 둘째로 부인에게 헌법상 및 민법상의 모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셋째로 부인을 육아와 생산의 유일한 기구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모성보호에 관한 하등의 시설이 없이 생산의 전후까지 가혹한 노동을 합니다.” 즉 사회주의 사회 건설만이 근본적인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이들은 일요일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활발하게 병행하였다.

1927년 4월 원희는 통합적 사회주의단체인 중앙여자청년동맹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청소년 남녀의 인신매매 금지’, ‘만 18세 이하 남녀의 조혼폐지’, ‘청소년 남녀직공의 8시간 이상 노동야업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그해 5월에는 당시 여성운동가가 총망라된 민족통합적 여성단



여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박원희의 기고글『동아일보』(1927.6.1.)



근우회의 강습활동

체인 근우회 창립에 앞장섰다. 여성문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원희는 특히 부인교양을 위한 강연활동에 열정적이었다. 1927년 10월 14일 함흥에서 「특수 환경에 처한 조선여성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원희는 “조선은 농산국이고, 일본은 공업국이다. 조선의 원료를 염가로 일본에서 방

매함으로써 조선의 경제는 날로 쇠퇴하여 간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선적으로 무슨 기관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주장으로 강연 도중 일경에게 연행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여성운동의 선구자, 눈을 감다

원희는 사국의 사후에도 활동을 군세계 이어나갔지만 병고로 인하여 1928년 1월 5일 홀연히 눈을 감았다. 사국이 세상을 떠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유일한 혈육인 네 살배기 딸 사건을 홀로 남겨두고 3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일들 잘 보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못다 이룬 여성해방·민족해방의 꿈을 동지들이 이어가길 바란 것이다. 1928년 1월 10일에 치러진 그의 장례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34개 사회단체연합장으로 거행되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장례식에는 1,00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하였고, 영구에는 ‘조선 여성운동 선구자’라는 명정이 덮여졌다. 정부는 200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고, 원희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열사묘에 사국의 유해와 함께 합장되었다.

조선은 농산국이고, 일본은 공업국이다.

조선의 원료를 염가로 일본에서

방매함으로써 조선의 경제는 날로 쇠퇴하여 간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선적으로 무슨 기관이 있어야 하겠다.

김사국 사망 후 박원희의 슬픔을 다룬 기사, 『동아일보』(1926.05.28.)





일본의 끝없는 역사 왜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IT보안 전문업체 (주)테르텐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일본의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 출판업체와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를 계약한 것이 확인되었다. 후보자 측은 '세계 여러 업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거래 규모도 적었기에 문젯거리가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왜곡해 왔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공작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1953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일본은 '이케다-로버트슨' 회담을 계기로 재군비와 자위대를 창설하였는데, 이를 기회로 우익은 좌파 세력 견제 차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상황을 비교적 진솔하게 기술한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 이후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검정을 강화하면서 교과서에서 자신들의 역사적 가해 사실을 감췄다. 그 뒤 1982년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1980년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자민당은 역사 교과서 문제를 들고나왔다. 자민당이 교과서에 애국심에 관한 기술이 빠졌고 지나치게 좌경화되었다며 비판하자, 보수언론이 이에 가세하여 애국심을 강조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관련 책들이 서점에 깔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문부과학성은 사회 교과서에 평화헌법, 자위대, 북방영토, 미일 안보협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문부과학성은 그해 6월 검정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침략' 용어 대신 '진출(進出)'이란 표현을 권고하였다.

더욱 노골화된 역사 왜곡

그동안 일본에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해왔던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문제 삼았던 부분은 기존 교과서와 달리 3:1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하여 일본의 가혹한 탄압을 합법화하려 한 점이다. 이외에도 일본의 '토지 수탈'을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라고 하거나 '강

제로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다'를 '신사참배를 장려하였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다'를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사용되었다'로 수정하고, '강제징용, 강제징병' 표현에서 '강제' 용어 등을 삭제하고자 한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수탈·차별·강요·희유·민족말살·착취 등을 당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인식과 판단하에 기술되어야 함에도 일본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다.

반일 감정을 불러온 일본의 처사

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갈등은 한국 내 반일 감정으로 표출되었고 연일 한국 언론은 일본 비판 기사로 도배되었다. 또한 반일 집회와 각 단체의 성명이 이어졌으며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전개되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대만, 동남아 국가들도 이에 가세하여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때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을 벌여 '독립기념관' 건립에 나섰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일 것이다. 중국도 베이징 중일전쟁 발발터에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세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대응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되레 한국 측 교과서에 일본과 관련한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것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파동은 일본 정부가 '이웃한 아시아 국가와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있어 국제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근린제국조항]'라는 검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86년 일본 우익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가 『신편 일본사』를 집필하고 검정을 신청하면서 다시금 교과서 파동이 불거졌다. 이는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으나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총리 지시로 네 차례나 직권 수정한 뒤에서야 통과되었다.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 표현 사라져

그렇다고 교과서 왜곡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강화되었다. 1995년 일본 내 보수우익은 '자학 사관'을 비판하면서 전쟁을 미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문부과학성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기술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1999년), 자신들이 쓴 교과서를 검정 신청했다(2000년 4월). 어느 교과서보다도 과거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가해 사실을 미화 왜곡하고 축소 또는 삭제한 내용이 많아 큰 파문이 일었다. 이로써 한국 측의 반일 감정은 고조되었고, 한일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문부과학성은 200여 개항의 수정지시를 내렸으나, 2001년 4월 일부만 수정한 채 검정을 통과하였다. 비록 문제된 교과서의 채택률은 0.1%에 불과하였지만, 2002년도부터 정식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로 사용됐다. 이를 계기로 2002년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6년간 소기의 성과는 거뒀지만, 2011년 3월 이후부터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2006년 9월 아베 내각이 시작되면서 일본 정부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애국심 교육 강화' 조항을 삽입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금 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졌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근거로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 발표하였고, 이는 2009년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담겼다. 연장선에서 2010년 3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와 2011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2016년에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고교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최근에는 2023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아예 삭제되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보수우익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사도광산' 등과 관련하여 수정주의 역

사관을 확산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의 역사교육과 언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인사들로 꾸려진 조직이다.

역사 왜곡 대응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

이에 대해 한국의 대응은 1970년대에 학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역사 관련 정부 기관, 학술단체, 연구자들이 일본 교과서 분석과 아울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공동역사교과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역사분쟁의 모델로서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그런데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다른 국가와 차원을 달리한다. 그동안 행태를 보면 극우단체가 앞장서고 자민당이 힘을 보태 분위기를 띄운 뒤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교과서에 반영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즉 일본 정부의 우경화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맞물려 있다.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 일본 제국주의의 군국주의를 경계토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보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날의 반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한일관계를 복원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에 앞서 올바른 역사의 합일을 이루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참다운 동반자 관계 회복은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되어 있다

일제가 남긴 상흔을 기록하다

일제 수탈의 흔적과 식민지배가 남긴 상흔의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이가 있다. 흩어져있던 껍적을 집대성해 우리 앞에 담담히 펼쳐놓은 그의 작품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끝난 줄만 알았던 뼈아픈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덜컥 다가온다.



전재홍 사진작가 Photographer

“일제 수탈의 흔적이 남은 건물이나 장소들이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혹은 본래 상태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상당수가 여전히 잔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외면할 수 없어서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Q 일제가 남긴 상흔들에 언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1990년대 당시 충남 논산 강경읍에 있는 일식 목조주택을 촬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곳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그 건물이 흔적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제야 헐린 건물이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의 근원지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 강경지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08년 일제는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기 위해 경성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창립하였고, 1910년 9월 15일 강경지점을 설립하였습니다. 강경지점은 전북과 충남 지역의 국유지와 개간지를 확보하여 일본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조선의 소작인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았지요. 이러한 일제 수탈의 흔적이 남은 건물이나 장소들이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혹은 본래 상태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상당수가 여전히 잔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외면할 수 없어서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Q 특히 일제 ‘건축물’에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점차 사라지는 상흔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먼저 일제강점기 쌀과 농지의 수탈거점이었던 호남평야를 찾아갔습니다. 1930년대 일본인 구마모토 리헤이는 호남평야의 수많은 농지를 매입하여 자신의 왕국을 조성하였습니다. 구마모토가 소유했던 군산농장을 시작으로, 전북 익산·전주·김제·정읍·완주에 산재한 일본인 농장과 주택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교통시설인 철도급수탑에 주목하였습니다. 급수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일제가 우리를 장기간 교묘하게 통치하는데 사용한 구조물입니다. 일제는 철도라는 ‘침략 하이웨이’를 이용하여 동아시아를 광기의 무대로 삼은 것이지요. 디젤기관차 등장 후 1967년 8월 31일 운행을 중단한 급수탑은 현재 전국에 스무 군데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아직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모른 채 물어둘 수 없어서 <제국의 평야>, <제국의 바벨탑>이라는 주제로 연작해 나갔습니다.

일제 수탈지 전북 김제평야, <제국의 평야> (1999년 촬영)



❓ 이후 피사체를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로 돌린 계기가 있었나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옛 신사(神社) 건물을 담기 위해 2003년 전남 고흥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병을 앓다가 일제 경찰에게 끌려와 강제노역을 당한 장기진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군수물자였던 가마니를 짜다가 동상에 걸려 두 손이 잘리고, 건물과 도로 건설에 필요한 벽돌을 만들다 파상풍에 걸려 두 다리를 잃은 사연을 들려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단종(斷種)을 당한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지요. 그의 육신은 일제 식민통치가 남긴 고통을 온몸으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실을 짐목할 수 없어서 인물을 통해 과거의 상흔을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제국의 휴먼>이라는 주제로 일제에 의해 ‘강제노역·이주를 당한 사람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앵글에 담았습니다.

❓ 촬영 장소와 인물을 섭외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텐데요.

20년 전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러시아 연해주·중국 길림성 등지를 돌며 일제에 의한 피해 현장을 낚날이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낚선 타국에서 촬영지를 답사하고 인물을 섭외하는 과정은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지요. 기획부터 섭외, 이동, 촬영, 후작업 등을 홀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 후에도 경로를 찾을 수 없을 때는 국내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촬영을 마쳤습니다. ‘731부대 생존 피



일제 강제입원·노역 및 단종(斷種) 피해자 故 장기진, <제국의 휴먼>(2003년 촬영)

해자’ 촬영은 중국 연변지역에 사는 지인이 박물관 관계자를 연결해줘서 성사될 수 있었고, ‘남경대학살 생존 피해자’를 섭외할 때는 남경시청에 공문을 보낸 후 허가를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마주하는 일은 늘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여계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하셨고 결국 문필기, 이옥선 할머니 두 분만 촬영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때 ‘오랜 세월도 가슴 속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일에 대한 필요성과 의무감을 갖고 작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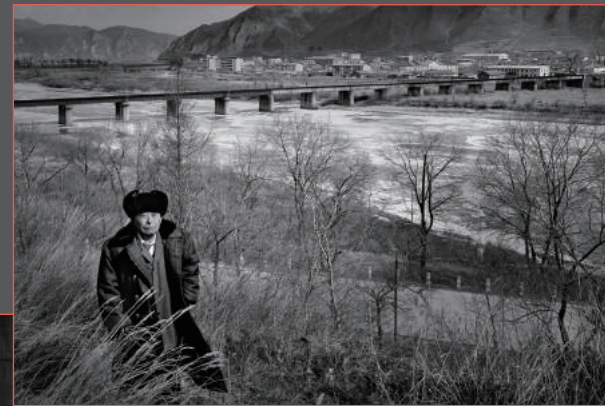
❓ 지난 2월 <제국의 휴먼>으로 제3회 FNK 작가상을 수상하였는데 소감이 어떠하나요.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일입니다. 상업적인 활동보다는 ‘순수 사진’에 집중해왔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때도 있었지요. 투자한 자본과 시간, 정성에 비해 물질적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념과 소명의식을 잃지 않는 것은 결

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이 더욱 반가웠어요. 곳곳하게 버텨온 시간을 격려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 최근 개최된 전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전남 화순에 있는 소아르갤러리의 초대를 받아 <제국의 휴먼>이라는 이름으



일제 강제이주 및 한국전쟁 참전 피해자 전광운, <제국의 휴먼>(2006년 촬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문필기, <제국의 휴먼>(2006년 촬영)

로 개최된 이번 전시는 일본제국이 일으킨 침략과 전쟁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가로 600cm·세로 240cm의 대작으로 제작한 ‘히로시마 원폭에 피폭된 사망자 위패’ 사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아르갤러리(061.371.858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오랜 시간 다큐멘터리 작업을 지속하며 느낀 점은 과거와 같은 역사는 다시 재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제강점기가 남긴 뼈아픈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기록해온 <제국의 휴먼>, <제국의 평야>, <제국의 바벨탑> 연작은 일종의 일본식민지 피해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업을 이어 나가며, 일제강점기·한국전쟁·분단의 역사 등을 거치며 대립된 이데올로기의 흔적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초반까지 이 땅에서 벌어진 이념의 대학살, 즉 제노사이드에 대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의 영원한 독립영웅 아웅산 AungSan

아웅산은 영국 식민지배와 일제 침탈을 물리치고 미얀마의 독립을 이끌었지만 1947년 7월 19일 정치적 반대파의 저격으로 32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다. 눈감는 순간까지 미얀마의 독립을 위해 고전한 그의 활약상과 투쟁정신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애국운동을 이끌던 당시 아웅산(1937)



불교 중심으로 전개한 민족주의운동

버마(1989년 미얀마로 개칭)는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영국은 분할통치를 통해 버마를 인도의 1개 주로 편입시켰고, 인도 출신과 소수민족 출신을 고용하여 버마인들을 억압하게 하였다. 이에 반발한 버마인들은 영국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불교와 땔 수 없는 역사와 문화를 가진 버마인들은 독립 및 민족주의운동 또한 불교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1906년 결성된 불교청년회(Young Men's Buddhist Association: YMBA)는 불교학교를 운영하여 불교적 덕목에 따른 도덕성을 강조하고 민족성을 일깨우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들은 버마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비폭력투쟁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영국의 반응은 냉랭하였다. 이후 1916년 영국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불교사원에 들어간 이른바 '신발착화사건'이 일어났다. 버마인들은 영국의 무엄한 태도에 강한 반발을 하였고, 이 사건은 버마의 민족의식과 애국운동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학가로 번진 애국운동

1920년대 들어 애국운동은 대학가로 번졌고,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학생 지도자들은 '민족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 1930년대 들어 민족학교를 거쳐 양곤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버마의 전통의상을 입고 등교하고, 독립 염원이 담긴 노래를 부르는 등 대대적인 애국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양곤대학교 학생이었던 아웅산(AungSan)은 전면에서 학생들을 이끌었다. 아웅산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이름 앞에 '주인'을 뜻하는 '따킨(Thakin)'이라는 단어를 붙여 불렀다.

검은 속내를 감춘 일본과의 연합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아웅산 일행은 이때를 독립을 쟁취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이들은 당시 동남아에 세력을 넓히고 있던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일본은 검은 속내를 감추고 버마의 독립을 돕기로 약속하였다. 아웅산은 일본의 지원으로 '30인 지사'와 비밀리에 중국 하이난 섬으로 가서 버마 독립군(Burmese Liberation Army)을 양성하였다. 이때 아웅산

은 이름 앞에 호칭을 붙이는 버마의 관습에 따라 '장군'이란 뜻의 '보족(Bogyoke)'을 이름 앞에 붙였고,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아웅산 장군'이라 불리고 있다.

훈련을 마친 아웅산 일행은 1941년 일본군과 함께 버마로 들어왔다. 이들은 버마인들의 지지를 받아 수많은 신병을 확보하였고, 일본과 연합하여 영국에 대항하는 전쟁에 돌입하였다. 결국 싱가포르 전선이 붕괴되자 영국군이 인도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전세가 우세해진 일본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며 버마 지배를 노골화하였다. 제공권을 장악한 일본은 버마 곳곳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였다. 현재 양곤 타옥짚국립묘지에 안장된 27,000여구 유해가 당시 참상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은 버마 남부를 순식간에 장악하였고, 아웅산의 독립군도 즉시 해체시켰다. 이후 군사정부를 조직한 일본은 버마의 기성 정치인 바모 박사를 수장으로 내세워 버마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독립을 이끈 반파시스트인민자유동맹

일본의 처사에 분개한 아웅산은 1942년 5월 버마 북부에 있는 왕도 만달레이마저 일본의 공격으로 초토화되자 비밀리에 영

양곤대학교 총학생회 위원회,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아웅산(1936)



런던 방문 당시 애틀리 수상과 아웅산(1947.1.)



국과 접촉하였다. 영국은 버마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였고, 아웅산은 그 즉시 10,000여 명의 군인을 모아 버마애국군(Patriotic Burmese Forces)을 결성하여 일본에 충구를 겨누었다. 이내 양곤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아웅산은 버마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독립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아웅산은 1944년 8월 항일정치단체 반파시스트인민자유동맹(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이하 AFPFL라 칭함)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1945년 10월 영국은 전쟁파괴로 황폐해진 버마를 다시 착취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태도에 반발한 AFPFL은 비협조운동을 선언하고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임시 정부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와 교섭을 이어갔고, 1947년 1월 27일 런던에서 만난 애틀리 수상과 아웅산은 버마 독립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목숨을 바쳐 이뤄낸 독립

한편 아웅산과 함께 런던으로 간 우소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식민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그는 영국 우익 정치가들과 연대하여 AFPFL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였다. 1947년 4월에 열린 버마 제헌의회 선거에서 아웅산이 이끈 AFPFL이 255석 중 248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후 6월 제헌의회가 출범하였고, 영국 총독의 협력하에 아웅산이 이끌던 집행위원회는 독립을 향한 실무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였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우소는 저격병을 동원하여 7월 19일 회의장에서 아웅산을 살해하였다. 당시 아웅산의 나이가 32세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AFPFL은 독립 준비를 서둘렀다. 9월 버마 제헌의회는 만장일치로 새 헌법을 채택하였고, 아웅산의 동지였던 우누가 임시 대통령과 수상에 선출되었다. 11월 영국 의회는 '버마독립법'을 통과시켰고, 1948년 1월 4일 마침내 버마족과 소수민족이 함께하는 독립공화국 버마연방(Union of Burma)이 탄생하였다. 오늘날 미얀마는 모든 종족을 아울러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로 결의한 1948년 1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중심에는 아웅산이 있다. 영국의 식민지배와 일제 침탈을 물리친 활약상을 보여준 그는 미얀마의 독립영웅이자 국부(國父)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독립기념관의 과거와 미래를 사진으로 잇는 사람

사진으로 남은 독립운동사의 기록을 또렷이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자료부에서 사진 업무를 맡고 있는 임공재씨다. 독립기념관 아카이빙의 꽃이라 불리는 사진자료 대부분은 그의 손에서 탄생하였다. 오늘날만큼 사진기록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 카메라 앞에 선 그를 만나본다.

사진실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 바랍니다.

독립운동 관련 사진자료(필름자료·디지털사진자료 등)를 영구히 보존하도록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아카이빙에 필요한 유물, 사적지, 중요행사 등을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자료들을 독립기념관의 전시·연구·교육·홍보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잠시 발간이 보류되었지만, 독립기념관 해당분야 전문 학예연구관, 연구위원들의 전폭적 지원으로 독립기념관만의 특성화된 소장자료를 전자사진집으로 발간하여, 소중한 자료의 기증과 발굴 동기를 부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근무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대학에서 사진학(다큐멘터리)을 전공하여 기록사진을 중심으로 촬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겪어온 고단했던 근현대사의 기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사가 업무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의 순간이 내일의 중요한 역사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매진하다 보니 나름의 노력으로 채워진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네요.

홀로 근무하고 계신데 힘든 점은 없나요.

초반에는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작업에만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나름의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하나씩 쌓아가는 작업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가짐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혼자 걸어온 20년 세월만큼 들여다봐야 할 자료와 작업들이 같이 쌓이더군요. 하루를 바쁘게 움직여도 계속 정리해야 할 자료들이 늘어날 때에는 일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버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유물 촬영은 꽤 까다로운 작업일 것 같아요.

유물 촬영은 일반적인 제품 촬영과는 달리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유물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온 만큼 미세한 충격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취약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색감, 질감, 입체감 등 유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빛의 질과 양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하지요. 여러모로 까다로운 작업인 만큼 유물촬영 의뢰자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촬영 중에도 계속 의견을 나눠야합니다.

기념·행사 촬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행사 촬영은 행사 성격과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선택된 그 장소가 가진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나리오 안에는 그 행사의 상징 장면이 될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해 반복된 행사는 대략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가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이 보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행동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촬영에서의 사진가는 철저히 그림자가 되어야지만 그날의 기억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기억에 남는 촬영 현장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록자는 현장과 상황을 구분하여 무게를 달리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진을 대했어요. 얼핏 보기에는 작은 이벤트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게는 행사 규모와는 구별 없이 모두 의미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찍는 순간들이 모여서 기록물이 되고, 독립기념관의 사료가 되고, 나아가 국가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지요.

고됨과 동시에 보람을 느끼시지 않나요.

물입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촬영을 마치면 동시에 피로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유물을 실물로 마주할 때, 백 년 혹은 그 이상의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 분들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과 숙연함을 느낍니다. 또한 어느 기관이든 비슷하겠지만 업무 방식의 변화를 통한 혁신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역사를 축적해가는 작업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역사를 축적해가는
작업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독립기념관은 기본적으로 현충시설이며, 박물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 빠르게 발전하는 시스템에 맞게 유물을 다루는 업무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름자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필름자료 및 디지털 사진자료의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저 역시 유물을 영구히 존속시키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사진집도 소개해주세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한 7권의 소장자료 사진집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권을 전자사진집으로 개정·발간하였습니다. 나머지 3권은 현재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지만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소장자료 전자사진집 발간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사진집 발간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간을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립기념관 소장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운동 가치의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립기념관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사 사적지 사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양한 사적지 사진과 전자사진집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월남 이상재 서거 95주년 기념 자료공개행사 및 학술회의 개최

이상재 후손 대한제국기 한성감옥 도서대출대장과 근대학교 관련자료 등

독립기념관은 3월 29일 월남 이상재 서거 95주기를 맞이하여, 3월 30일 오전에 '자료기증식'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월남 이상재 서거 95주기기념 학술회의'를 3월 30일 개최하였다.

2022년 1월 월남 이상재의 장남 이승윤의 증손 '이상구', 차남 이승인의 손자 '이공규'와 증손 '이진구' 씨는 월남 이상재 관련 자료와 조부 이흥직 씨가 소장한 구한말 일제강점기 교육자료 등 149점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 중 새롭게 조명된 것은 『한성감옥 도서대출대장』이다. 이 자료는 이상재 선생과 차남 이승인 씨가 함께 1902년 한성감옥에 투옥된 후 감옥 내 도서관의 도서대출내역을 정리한 장부(1903.1~1904.8)이다.

이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5년에 고 이광린 교수가 '감옥 내 온건개화파들의 기독교 전도 관련 자료'라는 관점에서 언론에 소개했고, 이후 이승만과 기독교 관련자료로 일부 연구자들이 주목해왔다. 하지만 최근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원본자료를 살펴보면 기독교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외에 '삼만'으로 불린 이승만, 정순만, 박용만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성감옥을 거쳐 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다. 더욱이 한성감옥은 일반사회와 분리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배재학당의 학생, 사법당국인 평리원 직원 등이 도서대출을 이용했던 공간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기증 자료에서는 당시의 한성감옥은 서구의 신진사상에 대한 탐구와 대한제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국제정세를 연구하며 '전제정치를 넘어 민주공화제의 정치 이상을 구상해나간 장으로 존재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독립기념관은 2018년 이상구 씨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자료를 기초하여 2021년 『월남 이상재 민족운동 자료집』(독립기념관 자료총서 60집)이 간행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이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경상대학교 이향아 교수는 '사회가 애도하는 죽음, 죽음이 불러낸 사회 - 월남 이상재의 사회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통해 국내 전국적 규모로는 처음 치러진 이상재의 사

회장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였고, 경기대학교 이왕무 교수는 '월남 이상재의 유교적 사조의 전환 고찰'이라는 주제로 자료집에 실린 과거시험 답안지인 「시권」 등을 분석하여 유학자인 이상재의 사상적 전환과정에 주목하였다. 단국대학교 박영미 교수는 '한시를 통해 본 월남 이상재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자료집 등에 실린 한시 57편을 분석하여 이상재의 사적인 일상생활과 교우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학술회의는 월남 이상재의 독립운동과 사상적 흐름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유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월남 이상재가 차지하는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자료공개행사



한성감옥도서대출대장



광복 제77주년 기념, 독립기념관 x SKT가 함께하는 그림공모

‘우리가 함께 그려갈 미래’를 주제로 여러분의 희망, 꿈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독립기념관과 SKT에서는 광복 77주년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그림을 모집하고 선정된 작품들로 국민 참여형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작한 콘텐츠는 이번 8·15 광복절에 재개관 예정인 제6관 ‘새로운나라’ 내 <우리가 그려온 역사, 우리가 그려갈 미래(가칭)> 코너에 상설 전시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을 통해 되찾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공모전 자세히 알아보기

공모 내용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지 또는 꿈꾸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 ‘우리가 함께 그려갈 미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주세요. 꿈, 희망, 소망을 담은 미래의 모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참가 대상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나(개인)

※ 공동 및 단체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접수 기간

2022. 5. 2.(월) 09시 ~ 31. (화) 18시

※ 참가신청 확인 내용 메일 회신 예정입니다.

작품 선정

작품설명 및 그림 내용을 토대로 총 77점 선정

※ 본 공모는 제출한 그림의 내용을 토대로 전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한민국 생각, 의견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모집하는 것으로 순위부여 및 시상은 하지 않습니다.



최종 선정작 혜택

저작권 관련 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77명에게 7만원 상품권 지급
선정된 그림(제목, 설명, 성명, 성별, 나이 포함)은 영상 체험 콘텐츠로 제작하여 독립기념관 제6관 ‘새로운나라’ 내 상설전시(전시교체 시까지 상시 전시)
제6관 재개관(8/15) 후 <학예사와 함께 즐기는 제6관 특별관람> 초청(선정자에게 별도 공지), 기념품 및 감사장 증정

선정작 발표

2022. 6. 14.(화) 예정, 선정자 개별 연락

※ 선정작(77점)의 저작권 관련해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 선정작은 콘텐츠 제작 및 선정작 혜택 등에 대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누락분만큼 응모작 중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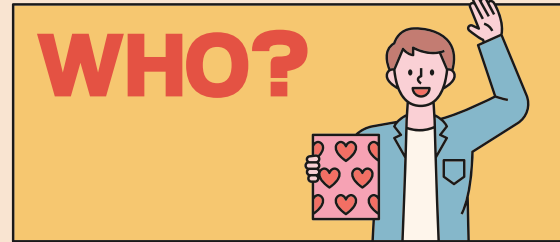
평일 10:00 ~ 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공모내용 관련 문의: 041-560-0272~3

접수시스템 등의 오류 및 문의: 02-761-042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 1) 한국의 현행법에서 규정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피해자는 000이다. (6-9페이지 참조)
- 2) 000와 김사국은 부부이자 사상적 동지였다.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이 곧 조국광복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 믿은 두 사람은 생을 다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20-23페이지 참조)

지난 호 퀴즈 정답과 정답자를 공개합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1. 대한독립공명단
2. 편지

지난 호 퀴즈 당첨자

최숙자, 김은경, 장효선, 도성열, 배인량
이승철, 하세진, 최은지, 장준호, 이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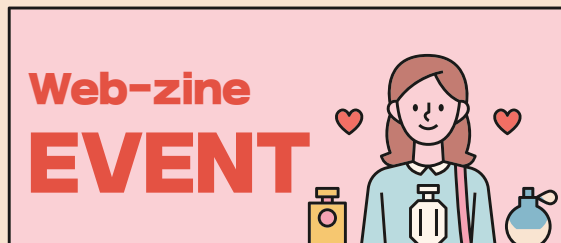
엽서도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월간 독립기념관 담당자 앞 ※ 이름, 연락처 기재

퀴즈에 응모해 주세요.

웹진-독자이벤트 바로 가기

5월 24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립니다.



「독립기념관」 웹진 '어쩌다 이벤트' 실시

독립기념관 웹진 4월호 '어쩌다 이벤트'에는
141, 341, 411번째로 입장한 배재순, 서정화, 주남현 님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웹진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께는
모바일 커피쿠폰(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립니다.
웹진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간「독립기념관」

무료 구독 신청 및 해지, 주소 변경 방법 전 화 041) 560-0244 | E-mail sunny@i815.or.kr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100년 전 1922년 5월, 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시기를 부탁하며
'어린이날' 제정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일제 지배 속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아야만 했고 가혹한 노동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선물하며
어린이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의 메시지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